

무예·스포츠를 뛰어 넘어 '예능·예술'로 진화한 태권도



서성원 tkdssw@naver.com

태권박스미디어 편집장 | 태권도 인문학, 태권도 문화산업에 관심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증명된 태권도 엔터테인먼트

WT 시범단, ‘아 메리카 갓 탤런트’ 준우승의 의미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본다.”

공중을 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발차기, 절도 있고 기개가 넘치는 군무(群舞),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

2021년 9월 15일, 세계태권도연맹(WT)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무대에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펼치자 곳곳에서 환호성과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

이날 WT 시범단은 3분 동안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예술적인 태권도 동작과 기술로 표현했다. 공연을 본 4명의 심사위원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 심사위원은 “내가 오디션 프로에서

본 공연 중에 가장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WT 시범단은 지난해 1월 ‘이탈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해 결선에 진출했다. 이 영상을 본 NBC에서 계속 출연을 요청해 오디션에 참가했다. 시범단 단장과 연출 감독을 포함해 한국에서 출발한 17명의 단원과 미국 현지에서 9명의 단원이 합류해 준준결승과 준결승에 이어 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승은 하지 못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WT 시범단은 태권도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과 예술적인 가치를 세계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줬다. 특히 태권도가 무예·스포츠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능과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요소도 폭넓게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시범단의 공연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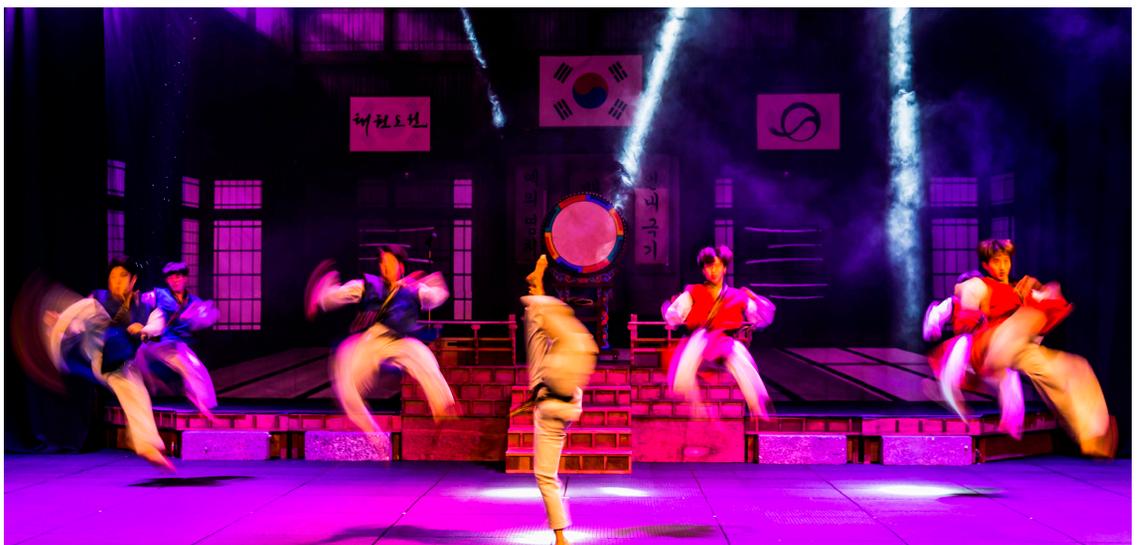
퍼포먼스는 유튜브에서 큰 화제를 낳으며 조회 수 3천만 회를 기록했다. 평소 '태권도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한 조정원 WT 총재는 “이제 태권도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예술문화 콘텐츠가 됐다”며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뻐했다.

태권도, 무예·스포츠에서 문화·산업 콘텐츠로 확장

이처럼 태권도는 무예에서 스포츠로, 스포츠에서 문화 콘텐츠로 그 영역을 확장하며, 태권도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태권도는 K-팝 이전에 한국이 수출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상품'이라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무예·스포츠의 영역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자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을까?

1960년대 초 태권도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바로 태권도의 영역을 무예에서 스포츠로 넓히는 것이었다. 1962년 11월, 대한태수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 前身)는 경기규칙을 제정해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후 태권도 경기를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 후 1973년 서울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격년제로 꾸준히 대회를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승인 종목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마침내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 아테네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 등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엘리트 위주의 태권도 스포츠는 갈수록 호응을 얻지 못하고 대중과 멀어졌다. 경기규칙을 개정하고 경기장의 변화를 꾀하는 등 대중



© clipartkorea

친화적인 스포츠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태권도의 영역을 대중문화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프트 시대’에 맞춰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바람이 불었다. 무예·스포츠의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창출하자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바람이 태권도계에 불었다. 태권도를 소재로 한 그림·영상·문학·공연·게임·공연 등 문화 산업적 콘텐츠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태권도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상품의 가치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 파워(Hard Power)’가 국가의 위상과 힘을 대변했지만 이제는 문화와 예술, 과학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권도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1996년 태권도는 한복, 김치, 아리랑 등과 더불어 ‘한국문화 10대 상징물’로 선정된 후 문화·산업·건강·관광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공연·게임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오락과 여흥 요소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활성화하여 태권도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위상을 드높이는 브랜드이자 역동적인 문화상품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은 태권도가 최초’라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현재 211개국에서 약 1억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고, 무한한 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¹⁾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태권도의 엔터테인먼트는 오락성과 상업성을 부추겨 태권도의 본질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대체로 인격 수양과 심신단련 등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를 중시하는 곳에서 태권도가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변질(變質)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흐름에 맞게 태권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는 태권도는 ‘박제된 유물’이라는 인식이 태권도계 내부와 외부로 확산되면서 태권도 예능·예술화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태권도 공연예술, 부가가치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각광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문화상품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이 태권도 공연(무대예술극)이다. 2001년 12월, (주)라이브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언어(년버벌) 형식으로 공연할 ‘쇼 태권’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은 태권도가 국제 경쟁력을 가진 고품격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무렵 (주)태권압 엔터테인먼트도 평키, 테크노, 재즈 등을 혼합한 음악적 요소와 리듬에

1) 서성원(2016).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 예니빅.



© gettyimages

태권도 동작을 결들인 태권도공연을 선보였다.

그 후 태권도 유관기관과 각 대학 태권도 전공학과에서 태권도 시범을 공연예술로 승화시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때부터 태권도 시범과 공연 장르를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태권도 동작과 기술 및 기풍의 모범을 보여주며 ‘태권도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던 단편적인 퍼포먼스에서 조명과 의상, 줄거리와 메시지, 연극과 무용적 요소를 접목해 무대장치가 갖춰진 공간(공연장)에서 공연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11년 12월,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태권도가 한류의 미래다!’ 행사에서 태권도 오페라 공연과 태권도 뮤지컬 제작이 주목을 끌었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미국태권도평화오페라단 단장 제임스 오는 “무도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 태권도 오페라에 대한 반응은 예상을 뛰어 넘을 만큼 아주 뜨겁다”며 “형식을 제대로 갖춘 정식 오페라 공연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뮤지컬 배우 남경읍은 “문화콘텐츠로 태권도를 홍보할 경우 태권도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예술극의 성격을 띤 태권도 공연은 그 후로도 활기를 띠었다. 2016년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태권도 공연장에서 년별 퍼포먼스 ‘킵스(KICKS)’가 첫선을 보였다. 이 공연은 ‘융·복합 新한류 콘텐츠’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태권도 동작과 익스트림 퍼포먼스, 영상, 댄스, RPG 게임, 드라마, 홀로그램

영상기술 등을 접목해 호응을 얻었다. 공연 운영사는 “키스 공연은 태권도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스포 엔터테인먼트 쇼’라는 장르로, 완전한 극장에서 공연 형태를 갖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²⁾

도약하고 있는 태권도 공연예술의 흐름

이제 태권도 공연은 비보이와 국악에 이어 현대무용과 발레, 관현악단 등과 협업공연을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태권도 문화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WT(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못지 않게 태권도 공연 예술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1974년 창단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기원 시범단은 2019년 3월, 미국 CBS가 제작한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더 월드 베스트(The World’s Best)’에서 준우승을 했다. 덕수궁 돌담을 연상시키는 우리나라 전통 돌담(장식)을 뛰어넘으며 시작된 공연은 3m 높이의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8개의 목표물을 연이어 격파하며 세계 유명 공연 팀과 경쟁해 태권도 공연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증명했다.

국기원 시범단은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 속에 매년 상설공연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 해 ‘위대한 태권도, 세상을 밝히는 태권도’로 공연을 한 후 2016년에는 ‘THE SUN’을 통해 진일보한 태권도 콘텐츠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목산수화를 배경으로 한 입체적인 스크린 영상과 국악, 태권과 씨름 등 한국 전통무예까지 담아내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7년 새롭게 기획한 ‘GREAT TAEKWONDO - 달의 무사’는 태권도와 무대예술이 융·복합된 화려

하고 역동적인 태권도 액션극(비언어 퍼포먼스)을 선보였고, 2018년에는 ‘위대한 태권도 시즌 4, 한국의 혼’, 2020년에는 온라인 공연 ‘위대한 태권도: 하이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메리카 갓 텔런트’ 준우승의 호응 속에 WT 시범단은 2022년 5월, 이탈리아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이탈리아 주요 라디오방송국이 밀라노에서 주최한 야외 콘서트에서 선보인 공연은 광장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관중들에게 탄성과 환호를 받았다. WT는 태권도 스포츠 단체지만 앞으로 태권도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대중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6월, 태권도를 뮤지컬 공연으로 제작한 ‘태권, 날아올라’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였다. ‘태권, 날아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해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으로 만들어졌다. ‘태권, 날아올라’는 체육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태권도 유망주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아 뮤지컬의 음악과 스토리에 화려하고 역동적인 태권도 퍼포먼스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 태권도 전공학과와 태권도 전문 공연단도 꾸준히 무대예술극을 제작해 공연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태권도의 공연예술화를 위해 창단된 Y-Kick 태권무무공연단의 활동이 이채롭다.

2) 태권박스미디어. 2016년 9월 1일. 태권도 공연 키스, 내년에도 할까.



Y-Kick 공연단은 지난 8월, 제주아트센터에서 ‘태권 무 한빛-제주 오백장군 이야기’로 기획공연을 했다.

K-콘텐츠 태권도, ‘경쟁력 있는 필살기’ 더 갖추려면

이제 관심은 태권도가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전망은 희망적이다.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 관련학과, 그리고 태권도 전문공연단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속에 경쟁력을 갖춘 공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KBS 예술과학원은 태권도 공연예술 분야를 개설해 태권도가 무도·스포츠의 개념을 뛰어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창조적인 태권도 공연예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실기 및 제작 능력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가 K-콘텐츠를 대표할만한 경쟁력이 있는 요소를 갖추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태권도 명품콘텐츠’ 정책을 추진해 태권도 문화산업의 확장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해준 것처럼, 현재 정부도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과 태권도 공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태권도 전용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태권도 공연을 서울 올림픽공원에 K-아트홀과 무주 태권도원에 공연장이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공연장이 넓어 관람객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을 건립한다면 태권도 공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 태권도 전공

학과에 태권도 공연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권도 전공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화를 위한 전문공연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태권도 공연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규모가 큰 공연이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태권도는 무예·스포츠의 본질과 영역을 유지하고 계승하되 시대 흐름에 맞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태권도 문화산업의 토대는 태권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예능과 예술의 가치를 두루 갖춘 태권도 공연예술이 될 것이다.



© gettyimages

3) 이우지(2014). 문화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의 상품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권3호.